



忠北大同門會報



2023년 9월 27일 화요일 제54호

발행인 : 윤양택 편집인 : 어강석



제20회 총동문 골프대회, 동문 간 화합의 굿샷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6월 29일(목) 오후 12시 30분부터 음성군 소재 코스카 컨트리클럽에서 60팀(2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총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골프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양승갑 국문82)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문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으며 개회식에서 회장 인사말, 경기 안내, 기념 촬영, 시타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는 개회식 후 13시부터 샷전 방식(18홀 동시 티오프)으로 3개 코스, 27홀에서 실시되었으나 계속되는 우천으로

경기위원회는 9홀 만에 대회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날 대회의 우승컵은 남자부 김종대(경영대학원, 70.4타)와 여자부 김수연(국문 70.4타)이 들어 올렸다.



<남자부 우승 김종대 동문>

준우승은 남자부 정희섭(건축 70.6타)과 여자부 송정숙(독문 72타)이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남자부 권순택

(산업대학원)과 여자부 김숙일(산업대학원)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장타상 남자부는 오준택(경영대학원), 여자부는 서미정(행정), 근접상 남자부는 어강석(국문), 여자부는 정은아(경영대학원)가 받았으며 버디상은 유진상(건축), 파상은 김정제(행정), 보기상은 이승금(컴공) 등이 수상하였다. 특별상은 토목공학과 최석훈 교수가 수상하였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60팀이 참가하여 중부권 최대의 동문 골프대회가 되었으며, 대회를 빛내 주신 동문들의 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우수 선수를 선발하고 전국대학동문 골프최강전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 상임이사회 및 제69차 정기총회 개최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3월 16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용정동 S컨벤션센터에서 2023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이어 실시된 정기총회에서는 재학생 장학금 수여,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감사패 수여 그리고 동문회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문패를 수여했다.

특히 자랑스러운 동문패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황영호(행정 80)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법석(행정 85) 청주시장, 이재영(정책대학원) 증평군수, 조병욱(행정대학원) 음성군수, 김문근(행정대학원) 단양군수와 더불어

충북대학교 개교 이래 첫 경무관으로 승진한 김철문(법학 85)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수여하였다.

감사패는 정동주(농학 63) 자문위원회 총무, 이재로(영어교육 74) 재경동문회장, 이인호(컴공 82) 총동문회 부회장, 이상철(토목 85)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회장, 최영준(사학 90) 농협은행 충북대 지점장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총동문회 장학금은 조성훈(체육 교육과 4학년)과 이교담(소비자학과 3학년)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되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인사말에서 “지난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와해되었던 동문회 조직을 재건

하려고 산하 동문회 회장단을 만나며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였으며, 올해도 더욱 강건한 총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 동문들>



<자랑스러운 동문패 수상 동문들>

차 례

- 01 제20회 총동문 골프대회 제69차 정기총회
- 02 충북대 총장 고창섭 인터뷰
- 04 학교소식
- 06 동문회소식
- 08 자랑스러운 동문_김응오 구청장
- 09 제33대 임원단 및 회비납부
- 10 도의원 인터뷰_유상용, 박진희
- 11 시의원 인터뷰_박노학, 변은영
- 12 학내소식
- 15 동문탐방_홍기남 학생
- 16 동문인터뷰_고근석 사무처장
- 17 광고_충북대학교 광고
- 18 동문기업탐방
- 19 학생인터뷰_배시혜, 한준희
- 20 광고_충북대학교 병원



Q1. 충북대학교 총장 취임 관련 동문께 간단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고창섭입니다.

총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으며, 지난 4개월은 대학의 대내외적 현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 등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충북대는 개교 70년을 거치면서 구성원, 동문들의 힘을 모아 세계를 향해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대학은 정계, 관계, 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에 포진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에,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충북대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Q2. 충북대학교 총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고, 그동안 주요한 역할이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2023년 4월 17일에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 몇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이차전지 혁신융합 대학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약 4년간입니다. 우리 충북대가 주관대학이고,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가 참여합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대학과 산업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기반 이차전지 특화 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완결형 기술혁신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3일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약 4년간입니다. 충북대가 주관대학이며,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반도체 특성화 트랙 운영, 기업 연계 교과목 개발, 실험실습 교육 강화 및 참여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실무형 반도체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충북지역 발전도 함께 견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예비대학

에 선정되어 본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 계획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3. 총장님의 역점 공약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 경과는 어떠한가요? 충북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약 준비 과정에서 지역 대학이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충북대학교 미래 100년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대학이 나아가길 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의 방면에서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이 꿈을 이루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Gap-Zero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Gap-Zero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학생에게 취업 정보와 재직 선배의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스펙과 학생들의 겹을 제로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14개 시범학과와 신청을 받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1차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교수 연구역량 확보를 통한 Global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교수 맞춤형 연구지원 강화, 대학원생 RA/TA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올해 7월 1일 학내 조직 개편을 통해 우리 대학 연구처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한걸음 한걸음 미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연구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지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총장과의 소통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간소화 독려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으로 지속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대학을 워라밸이 있는 행복한 CBNU 공동체 즉, 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혁신 성장 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이 견인하는 충청북도 지역혁신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4. 요즘 가장 중요한 화제인 글로벌대학30사업 선정에 대해 동문들께도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통대와 함께 예비 지정대학(전체 15개교)으로 선정(23. 6.)되어 실행계획 제출 준비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충북대는 교통대와 공동으로 '공유 → 연합 →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하여 지역 정주 혁신 선도 인재를 양성하는 예비지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교통대와의 통합 계획과 담대한 대학혁신을 본실행계획서에 담기 위해 양 대학은 '글로벌대학30 준비 추진단'을 신설('23. 7. 25.)하였으며, 준비 추진단은 혁신계획수립팀과 대학상생협력팀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학상생협력팀에서는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통합 내용을 논의하여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계획수립팀에서는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청 및 충북연구원과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원활한 사업 계획 수립을 협의의 중이며, 매주 학생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투표는 교수회·직원회·학생회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대학30 사업 계획서 제출까지 혁신적인 사업 계획 내용 및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도출하여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회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과 미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대학

- **의의:**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
- **지정 규모:** 2023년 10개 내외 →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2023년, 2024년 10개 내외 지정, 2025년, 2026년 5개 내외 지정
- **지원사항:**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Q5. 총동문회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학생들은 아직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총동문회에서 우리 대학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배경,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 방향에 대해서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해야 했던 시간이 물리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학생 간담회를 매주 실시하여 학생과의 소통 체계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의

긍정적인 기대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고 또한 홈페이지, 학교 공식 SNS 등 학생 중심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교수, 학생, 직원 대표들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대학 통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고, 9월 말에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제출 전까지 학생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구성원의 충분한 공감 속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6. 학교의 성장과 견고한 발전을 위해서는 총동문회의 든든한 지원과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개교 이후 지난 70년의 시간은 동문 모두의 자긍심이며 20만 동문의 커다란 관심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대학의 변화를 크게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충북대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더해 만드는 자발적인 변화가 미래를 여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며, 구성원의 이해와 단결뿐만 아니라 20만 동문과의 긴밀한 공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동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고 정계, 지자체,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동문들과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충북대가 지역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거점국립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7. 충북대학교 총장으로서 총동문회에 바라는 것과 동문분들 모두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어려움은 충북대도 예외가 아니기에 충북대의 미래 도약을 위하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북대의 새로운 100년을 개신 동문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총장으로서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율, 존중, 소통, 변화, 미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충북대를 이끌어 우리 대학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동문 여러분들도 모두 충북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강석 편집위원장〉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 고창섭 박사 취임식 개최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 고창섭 박사의 취임식이 5월 24일(수) 오후 2시 대학본부 3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취임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보직자 소개, 총장 약력 소개, 취임사, 축사(영상 축하 메시지), 대학 발전 방향 발표,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취임식에는 도종환 국회의원, 이진숙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장, 차정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단과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 오재석 LS일렉트릭 부사장, 김상면 자화전자 회장 등 도내 각 기관장과 기업의 대표단, 충북대 전임 총장단, 대학 간부진, 학생, 교직원 등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고창섭 총장은 향후 4년간 충북대를 이끌어갈 대학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고창섭 총장은 자율, 존중, 소통, 변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이 꿈을 이루는 대학 ▲Gap-Zero 자기 주도 취업프로그램 운영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지원하는 대학본부, 연구자 중심의 산학협력단 ▲위라벨이 있는 Great Work Place 충북대

학교 ▲존중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재정 확대 ▲특성화된 네트워크 혁신 캠퍼스 조성 ▲새로운 100년을 위한 CBNU혁신파크 유치로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고창섭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좋은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는 대학”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거점국립대학은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이자 주체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거점국립대학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추고, 글로벌 대학30 사업과 RISE 사업 등 충북대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자율과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혁신함으로써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섭 총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전자정보대학장, 기획처장,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LS산전, 한국연구재단 등과 50여 건의 과제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6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학생생활관 증개축 및 리모델링 추진



충북대학교가 오래된 학생생활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0-90년대 대학을 다닌 동문들은 농대 뒤편의 여학생 기숙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계영원’으로 불리던 이 기숙사는 2003년에 중문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 주로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양현재)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1985년에 건축하여 올해로 38년이 지난 이 기숙사는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이 오래되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또한 중문에 있는 ‘개성재’도 1991년에 신축되어 30년이 지났다.

충북대학교는 이들 노후 기숙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더열린개신생활주식회사’(가칭)와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BTL이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더열린개신생활주식회사’는 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회사(SPC)이며, 건설 출자는 대보건설

(주), (주)동신, 국제건설(주) 등 3개사가, 운영 출자는 (주)에스엠, 재무 출자는 IBK기업은행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청운관 옆 기계실과 전기실 이전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후 생활관 환경개선을 시작한다. 증개축 공사에 해당하는 학생생활관은 양현재 등용관과 관리동이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학생생활관은 개성재 진리관·정의관·개척관이다. 양현재는 현 관리동, 등용관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관리동 부지에 연면적 8,867㎡ 넓이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학생생활관이 새로 건축되며, 수용인원은 2인 1실(19㎡) 235실, 장애인 1인 1실(22㎡) 4실로 총 474명이다. 개성재 진리관·정의관·개척관 3개 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용화장실/샤워실 대신 개별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2인 1실(26㎡) 131실로 262명을 수용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각 생활관별로 다른데, 양현재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8개월간, 개성재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2개월간 진행된다.

양현재 증개축 기간에는 양현재 생활관생 중 희망자는 양성재에 거주하게 하고, 양현재 공사 이후 개성재 생활관생 중 희망자는 양현재에서 거주하게 하는 등 공사로 인한 생활관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유학생과 연수생이 거주하는 양현재는 증개축이 완료되면 내·외국인 학생이 함께 거주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시행

충북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 소비도 늘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한 끼당 학생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 1,000원, 대학이 2,000원을 각각 부담해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식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업은 5월 2일(화)에 시작하여 12월 21일(목)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제1학생회관 1층 한빛식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덮밥, 볶음밥 등 다양하고 건강한 메뉴를 구성해 매일 30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5월 2일(화)에는 오전

8시부터 고창섭 총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하며 건강한 하루를 응원했다. 대학 보직자 및 교직원들은 300명의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하고 식권을 배부했다. 고창섭 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건강한 아침식사로 학생들의 새로운 하루를 응원하고자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학생들 모두 건강한 아침식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학년도 입학식 거행



충북대학교는 3월 2일(목) 오전 11시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 2023

학년도 신입생 4,641명(학부생 3,417명, 대학원생 1,224명)의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박종진 학생처장이 학사보고를 진행하고, 신입생 대표로 의과대학 조범재 학생이 입학선서를 했다. 이를 통해 학칙 및 제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포부 등 대학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충북대, 제주대와 33년의 우정을 다졌다!

충북대학교가 제주대학교와 33년의 우정을 다졌다. 충북대에서는 7월 11일(화)에 제주대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류연수단 38명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가졌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1990년 2월 제주대학교와 교류협약을 맺고, 매년 상호 대학을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상이한 양교 학생 및 교직원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학술 및 지역문화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북대 교류연수단은 지난 7월 4일(화)부터 7월 6일(목)까지 제주대에 방문한 바 있다. 제주대 교류연수단



은 여인규 학생진로취업처장을 단장으로 인솔 교직원 12명, 박주영 총학생회장 등 26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7월 11일(화) 고창섭 총장을 예방하고, 학생 홍보대사 '해울'이 안내하는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주대 교류연수단은 7월 13일(목)까지 청남대, 충주호, 고수동굴, 조정행궁 등 충북의 명소를 방문해 충청도 문화·환경 체험하였다.

충북대, 소축제로 지역민과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시간 마련



충북대학교가 5월 17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충북대 정문 앞 잔디밭에서 학생, 교직원, 동문회 등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2023학년도 소축제 '봄, 여름 그 사이 어딘가'를 주제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잠시 쉬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회식 및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단과대학별 해오름제 우승팀 경연, 시상식, 연예인 축하 무대 등으로 진행됐으며, 부스존과 푸드트럭을 운영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번 소축제를 계기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더욱더 활기를 더하고, 학생·교직원·동문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또한, 충북대는 Gap-Zero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자부심 넘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한국교통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5월 11일(목) 한국교통대학교 U-Edu센터에서 상호 협력과 대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글로벌 대학30 사업 참여를 위한 상생 발전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대학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별 자체 발전(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양 대학의 총장은 이번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각 대학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제1차 글로벌대학30 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예비평가 시 제출한 혁신 기획서의 "공유-연합-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한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이라는 핵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한국교통대학교-충북대학교 글로벌대학30 추진단 전체회의'를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증평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대학의 기획처장을 단장으로 한 '글로벌대학30 추진단' 소속 교수와 직원 60여 명이 참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강혁진 기획처장의 상생협의를 위한 소관과제 설명에

이어 5개 팀·분과(혁신계획수립팀, 학사조정분과, 대학조직개편분과, 대학재정분과, 외부소통협력분과) 별로 소관과제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계획수립팀은 혁신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업 발전 방향 수립 등을 논의하였고, 학사조정분과는 양 대학의 학사제도와 관련한 토의를, 대학조직개편분과는 조직개편 등의 논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재정분과에서는 양 대학의 대학회계·산학협력회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외부소통협력분과는 대내외 구성원과의 소통방안과 관련한 토의를 실시하였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대상 글로벌대학30 사업 설명회



지난 7월 28일(금)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임시 상임이사회'에서는 충북대학교가 총동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대학30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대학교에서 '글로벌 대학30' 사업의 신청 필요성, 예비지정 대학 신청 내용 등을 설명하고, 한국교통대와 통합 추진계획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인 동문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창섭 총장,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사동민 대학원장, 서용석 기획처장, 류근형 (주)한일 부회장, 이윅희 충북도의원 등 대학 주요 보직자와 총동문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섭 총장은 "지역 산업체와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의 모델을 우리 대학과 한국교통대가 글로벌대학30으로 실현하겠다."

며 "모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문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대학30 사업 추진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회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지역대학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양한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8월 3일에는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관련하여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대학 통합이 지역거점대학의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대학, 학생회와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통합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한 총동문회는 대학 통합에 대한 목표·비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추진 일정의 소통, 학교·학생·동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장충덕 편집위원>

2023년도 1학기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개강모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회장 박종진, 체육교육과 83)는 3월 23일(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다목적실에서 약 1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박종진 회장의 개회 선언과 윤양택 총동문회장과 김수갑 전 총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1학기 개강 모임을 가졌다.

충북대 재직동문회는 동문 교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매년 4회 개최된다.

이번 개강 모임에는 재직동문회장을 비롯해 김수갑 전 총장님과 정년퇴임을 앞둔 신 원로 교수님, 윤양택 총동문회장님 등 직원과 교수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 동문들은 그동안 코로나 19의 여파로 자주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도에

새로 임용된 4분의 교수님과 신규 보직자 및 신분 변동이 있는 직원 등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재직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배득렬 전 재직동문회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재직동문회와 총동문회의 연중 행사 소개를 통해 앞으로 재직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재직동문회는 윤양택 총동문회장님의 격려금을 비롯하여 농협 충북대 최영준 지점장과 많은 보직자 교수님들께서 현금과 경품 등을 기부해 주셔서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충북대 재직동문회 박종진 회장은 앞으로 우리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동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 제22차 정기총회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회장 신홍섭 본부장)는 3월 31일(금) 18시부터 용정동 S컨벤션센터에서 약 1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활동사항보고, 감사 및 결산보고, 23년 사업계획, 회칙 개정 등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 동정 안내와 만찬 등으로 마무리되었다.

신홍섭 동문회장은 “180여 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활기찬 소통과 화합으로 동문회 발전은 물론이며,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지난 해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들의 활동과 총동문회에 대한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문간 우애가 넘치는 재직동문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골프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제20회 총동문 골프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4월말에 발족하였다. 지난 대회부터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그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위원장은 양승갑(국문 81) 동문이, 부위원장은 류근형(토목 86) 동문이 맡기로 하였으며 위원으로 김응규(행정 86), 이영노(컴공 86), 최영준(사학 90), 김경열(국어교육 92), 박근동(건축 87), 조남훈(산업대학원), 김현주(대학원), 강병수(경영대학원), 황용성(경영대학원), 황동민(안전 87)을 위촉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대회장소 섭외, 참가 선수 모집, 후원 및 협찬 등의 역할을 통해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경찰청 재직동문회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5월 18일(목) 19시에 비하동 모 식당에서 경찰청 재직동문회(회장 신호섭 총경)와 만찬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재직동문회에서는 신호섭 신임회장과 노재희 전임회장 등 7명의 집행부가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박흥찬 대외협력위원장,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경찰청 재직동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노재희 회장이 이끌어 왔으며, 이날 신임 신호섭 회장에게 baton을 넘겼다. 신임회장인 신호섭 총경은 현재 충북 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3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축제 격려금 전달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5월 17일(수) 오후 6시30분부터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생명과학부 3학년)가 모교 정문 앞 잔디밭에서 개최하는 2023 소축제에 참석하여 축사와 더불어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보직교수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5월 31일(수) 18시에 비하동 모 식당에서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을 초청해 만찬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모교에서는 고창섭 총장, 사동민 대학원장, 박유식 교무처장, 홍장의 학생처장, 오영렬 사무국장, 김양훈 산학협력단장, 박연호 인문대학장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류태기 자문위원장, 류근형 부회장, 이재로 재경동문회장, 양승갑 골프대회준비위원장, 어강석 회보 편집위원장, 박흥찬 대외협력위원장, 황동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신임 고창섭 총장 취임 후 총동문회와 처음 갖는 자리로서 축하 케익 절단 및 건배 제의로 시작하여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축하 및

환영사와 고창섭 총장의 답례사가 있었으며 이후 만찬고 더불어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한 많은 공감과 교류가 있었다.

윤양택 회장은 “고창섭 총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교의 발전에 총동문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고창섭 총장은 “충북대학교가 글로벌 중추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동문회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답하였다.



자문위원회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6월 15일(목) 12시에 모교 부근 식당에서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 겸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류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총동문회 및 모교 현안 문제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있었다.



이육희 도의원 부회장 위촉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6월 19일(월) 오후 2시에 총동문회 사무처에서 이육희 도의원(대학원)을 제33대 부회장으로 위촉하였다.

이육희 도의원은 2017년 2월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충청북도의회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이다.

충북대상공인회 창립 30주년 기념총회

지난 9월 19일(화) 오후 7시에 경화대반점에서 모교 출신 기업인으로 구성된 충북대상공인회(회장 김응규)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총회를 열었다. 93년 9월 모교 교수회관에서 개신청년상공인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된 충북대상공인회는 개신상공인회라는 명칭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4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충북대상공인회는 창립총회 때 고시원과 총학생회에 각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1억 원이라는 기금을 모아 그 이자수익으로 매년 700만 원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지급하였고 지금은 모교에 매년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영대학원 동문회 발대식

경영대학원 동문회가 6월 22일(목) 발족되었다. 경영대학원 MBA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와해되었던 동문회를 재건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뜻을 모았고 졸업생 가운데 23기 ~ 30기를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영대학원 동문회를 이끌어 갈 임원으로 회장은 김시흥(23기), 총무는 김도용(24기)과 신은주(28기)를 선출하였다.

총동문회에서는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동문회 발족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임시 상임이사회 실시와 통합 관련 성명서 발표

총동문회는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간 통합 관련 의견을 묻고자 지난 7월 28일(금)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부회장과 상임이사, 동문회 원로인 자문위원, 전직 총장, 명예교수,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대학 측은 고창섭 총장과 사동민 대학원장, 서용석 기획처장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대학30 사업 관련 설명과 대학 간 통합 관련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대학 측과 재학생 대표의 설명

후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3시간이 넘도록 열린 찬반토론 끝에 회의 참석자들은 대학 통합이 지역거점 대학의 발전과 지역소멸위기의 극복,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학이 총동문회와 학생회에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대학 간 통합에 적극 찬성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총동문회는 일정 기간 추가적인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3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다음 -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 간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1. 충북대학교 총동문회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관련한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 간 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장기적으로 충북지역의 모든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2. 학교가 통합 추진에 충분한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생과 동문들에게 충북대학교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통합에 대한 목표와 비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추진 일정, 통합 시너지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 학생, 동문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통하기 바란다.

〈황동민 편집위원〉



자랑스러운 동문
INTERVIEW

청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김응오(국문 85) 서원구청장

“저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5학번으로 1992년에 졸업하고 1994년 청주시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30년차 공무원입니다.”

충북 청주 서원구청장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시지 알려주시지요?

올해 1월에 서원구청장으로 부임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동 9개면으로 구성되어 358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건축·광고물 등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여권 발급, 지방세 부과 징수, 도로·하천 관리, 재해 예방, 환경 및 위생업소 관리, 건축허가, 광고물, 교통 관련 버스승강장 관리,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구청,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서원구민 대청소의날>

어떤 계기로 공직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전 사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무렵 냉정히 생각해 보니 미래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공직을 목표로 공부해서 거의 1년 반 만에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에 발령을 받아 동사무소

근무부터 구청, 사업소, 본청 근무 등 여러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지요.

특히, 경제, 문화 관련 부서에서 여러 번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구청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어떤 일을 해결해 주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되니 나름대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만났던 분들에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대 학 시 절

구청장님의 대학시절은 어땠나요?

전 학창시절에 대학신문사 기자 활동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 가 보니 그때 당시 신문사 건물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빠르게 훈련받던 견습기자 시절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그때의 경험이 공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 시절은 아무래도 80년대라 학내 시위도 많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나름대로 낭만도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은사님 중에 신용대 교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배까지 권하며 스스럼없이 대해 주신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렀었죠. 근대 학점은 굉장히 엄격하게 주셨던 것으로 유명했죠.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는 캠퍼스가 매우 넓은 학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빈자리가 별로 없을 정도로 건물이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북대학교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교가 내실을 기해 중부권 최고의 명문 대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동문 여러분! 항상 하시는 일이 잘돼서 충북대학교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굳은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한다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모교의 발전이고 여러분의 성취가 모교를 빛낼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동문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제33회 임원명단

회장

윤양택 컴공82

감사

김용은 과학교육72 정삼균 경제95

사무처장

황동민 안전87

자문위원

위원장 류태기 체육교육61	김태훈 화공70	송범헌 농학73	임창재 농학64	최한기 체육교육72
곽정수 농공63	김현준 체육교육63	연광석 농학64	정동주 농학63	한종구 국어교육72
김광렬 화공71	박동준 영어교육73	유무웅 체육교육61	정상길 농학64	
김내수 축산68	박인성 행정대학원	이중근 체육교육70	정상혁 입학60	
김병동 체육교육64	변상권 영어교육70	이훈 축산63	정찬문 연초72	
김윤배 약학73	석영선 연초68	임상화 약학70	조성찬 농공69	

부회장

강병권 법학전문대학원	도종환 국어교육73	신호섭 행정88	이원배 산업대학원	장수정 산업대학원
고근석 법학84	류근형 토목86	심우용 경제87	이용근 기계86	장윤식 식품82
권민안 체육교육85	박경국 농경77	양승덕 의학85	이인호 컴공82	정봉수 법학전문대학원
권용봉 건축82	박기수 농학93	엄정식 무역86	이윅희 대학원	정석기 의학90
김동식 건축84	박덕규 건축86	엄태영 화공77	이장섭 국문82	정종홍 경영대학원
김동완 중문81	박영순 토목84	연경환 경제81	이재신 법학86	정희섭 건축87
김두호 농생물79	박완희 정보92	오유식 컴공86	이전명 약학96	조기식 무역79
김사석 체육교육81	박종서 토목80	유상용 제약86	이종영 경영83	조남훈 산업대학원
김수갑 법학80	박종진 체육교육83	유용철 회계91	이진희 건축80	조성록 입학82
김응규 행정86	박진희 국문91	윤종락 법학전문대학원	이차영 행정79	조성훈 사법90
김종복 산업대학원	배득렬 중문81	윤종민 법학81	이한목 경제80	최병윤 건축80
김진균 체육교육81	배바로니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우 산업대학원	이현우 토목86	최태호 입학79
김제홍 전기84	변은영 정외88	이광형 축산82	이현웅 도시88	최현호 법학81
김진상 토목79	송태영 행정79	이동범 토목87	임병운 농공14	한만혁 수학교육82
김철문 법학85	신강일 불문86	이면재 약학80	임희종 건축85	홍종갑 법학91
김형근 경영78	신동엽 무역82	이범석 행정85	장동석 제약96	황영호 행정80
노동영 법학97	신태수 약학84	이영노 컴공86	장선배 경제81	

상임이사

곽종국 농기계84	김요식 화공78	박철용 농학83	양영순 불문83	장석천 법학90
구민형 경영대학원	김은영 가정교육86	박한규 사학84	우선희 농학80	최성호 축산91
권명중 축산08	김응운 경영96	변기철 경영대학원	유희재 토목81	최영준 사학90
권순동 경영87	김정희 미술교육78	서상택 농경85	윤병인 대학원	최유리 토목06
김경민 경영대학원	김찬중 경영82	서정욱 입학90	이강우 경영대학원	허태영 통계91
김기동 생물82	김철구 경영96	서지민 고고미술사95	이광희 농생물82	허현주 경영대학원
김길하 농생물79	김태석 정외87	신광균 전기94	이기수 미술교육82	홍기남 토목89
김두환 체육98	김환진 경영대학원	신의섭 철학81	이범홍 무역87	홍진태 약학80
김상혁 천문우주91	김현주 대학원	신현구 경제82	이우범 국문82	황운서 경제82
김선각 대학원	맹승진 농공86	신홍섭 경영84	이은봉 농학82	황창호 경제92
김선희 천문우주92	박결순 역사교육77	신창범 무역95	이성우 건축86	
김성만 입학85	박수진 경영대학원	신화수 경영89	이종규 토목89	
김영관 사학85	박영석 의학93	안광국 토목85	이호진 토목93	
김영주 전기91	박종국 의학85	안효풍 경제81	임달호 경영84	

대협력위원

위원장 박흡찬 수학83	이필재 공법89
강수진 회계92	
이종선 영문84	

임원회비 · 동문회비 ·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회 장: 윤양택 2,000만 원
- 부회장: 60만 원
고근석 권용봉 김동식 김사석 김종복 김진균 김제홍 김철문
도종환 류근형 박경국 박종서 송태영 신동엽 엄정식 유상용
이동범 이범석 이영노 이인호 이윅희 이원배 정석기 장동석
장수정 조기식 조남훈 조성록 최병윤 최태호 최현호 한만혁
- 상임이사: 30만 원
구민형 김길하 김두환 김상혁 김선각 김선희 김영관 김요식
김은영 김정희 김태석 박수진 박영석 박종국 신광균 신의섭
신홍섭 서정욱 안광국 양영순 이강우 이호진 최성호 최영준
최유리 허태영 홍기남 황운서
- 평생회비: 류호철(안전88) 50만 원 박상덕(토목78) 50만 원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 시 성명 · 학과 · 입학연도 입력 요망!! · 연회비 6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 농협 301-0229-7165-71(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 문의 043-261-3121

충북도의회 유상용 의원 (제약 86)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의원 유상용입니다. 저는 제약학과 86학번으로, 2005년에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재정위원장을 맡아 모교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과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35살의 나이에 충북대학교 약학과에 입학해 40살에 졸업하고 15년여 간 약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 재학시절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의 꿈을 키웠고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에 입당해 현재까지 20여 년간 당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위원회를 제외한 충북도당의 모든 위원회에 몸 담아봤을 만큼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도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이번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회의 규정에 의해서의 전문분야인 보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2005년 중남대와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8000여 명의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대집회를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대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 습니다. 물론 현실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모두 똘똘 뭉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문들도 힘이 닿는 데 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충북을 뛰어넘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자부심을 갖고 대학의 상징물인 황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랑스런 충북대인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길 바라며, 동문분들의 모교사랑 후배사랑이 충북대의 발전입니다.

늘 모교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국어국문 91)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12대 도의원 박진희입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91학번으로, 졸업하고 현재 21학번으로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충북도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도민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지요.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으로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정당인이나 선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늘 생활 정치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나름의 정치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대학교 4학년 때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방송작가 일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꼬박 15년을 방송작가로 일했습니다.

특히 다방면의 시사 이슈를 심도 있게 보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설움이 방송 일의 보람과 즐거움을 상쇄할 수준에 미달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 직업을 청산하게 됐지요.

한동안 육아에 집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육아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을 3년간 맡았었지요. 이후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를 창립하고 충북지부 창립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 일을 계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에 도전했고 그야말로 치열한 경선과 투표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1번의 순번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일이나 보람 있던 일

7월 1일 등원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망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배정을 희망하지 않았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배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라는 변명은 도민들에게 절대 통하지 않고 그런 변명을 하는 도의원은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문제점을 도민께 알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인지 작년 연말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시상하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고, 얼마 전 6월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의 저를 아는 분들은 믿지 않으실 정도로 전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앞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썩썩하게 개선을 요구하지만 대학시절에는 저조차 지금의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바라는 점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치인의 시간은 정치인 개인의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지역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 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라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청주시의회 박노학 의원 (농생물 86)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충북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저는 현재 청주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노학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항상 저의 뿌리, 충북대의 동문들과 그 교육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청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의원으로서 청주시민의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시지요?

청주시의원으로서 청주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이슈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및 법안을 심의하며, 시민들과의 소통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시의원이 되셨는지?

저는 오랜 시간 동안제가 사는 지역의 여러 문제와 이슈를 바라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직접 듣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최근 집중호우로 오송읍과 강내면에서는 그 피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직접 보면서,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도움과 함께, 청주시민 모두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전기차 충전 시 화재예방, 운보 미술관 및 문화예술 관광을 통한 시민 삶에 질 향상 등 시민들을 위하는 안전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농업부산물을 청주권광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량의 농업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 방법이 없었던 농가들의 고충과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의미 있는 추억이나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대학교 1, 2학년때의 전방입소와 80년대 민주화 학생 운동, 농촌 봉사 활동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의 동료들,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과의 후배들...

모두 어떻게 지내는지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요즘의 경제적 환경에서는 졸업 후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 개선, 취업지원 센터의 활동 강화, 그리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꿈과 열정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파이팅!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원 (정치외교 88)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 동문 가족 여러분! 저는 정치외교학과 88학번 변은영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와 정당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율양사천동이고, 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재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원으로서 활동 중인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시지요?

지금은 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청주시의 쓰레기문제와 오폐수처리, 자원재생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 활동 과정에는 청소차 용역 관계나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균형감 있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시의원이 되셨는지?

2004년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2010년도에 다시 청주로 내려와서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지역활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주청원지역구 의원이신 변재일 의원의 제안으로 지역구 보좌관을 하면서 시의원을 준비하고 2018년도 청주시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김근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화시키는 힘과, 균형잡힌 시각과 실무는 변재일 의원님에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의원생활을 하며 보람된 것은 뭐니 뭐니해도 자신의 가치가 담긴 조례를 만들고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애뜻하고 사랑스럽죠.

청주시의 사업들이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과 주민이 매뉴얼적으로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내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의미 있는 추억이나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선후배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학과 동아리활동과 각종 엠티나 축제 때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반면에 아프고 교훈이 되는 여러 사건들도 기억이 나지만, 그건 저와 그 시대를 겪었던 선후배, 동기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의과는 매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기억들이 소환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공유하는 걸로 할게요.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충북의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충북대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탯줄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것처럼 충북대는 세상의 연결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들 키워내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동문 후배 여러분! 지면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연의 끈이 이어져서 현장에서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동문과 후배들이 충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북대 동문 및 관계자분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경제학과 학생들,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 우수상 수상

경제학과 'Ego!(Economics Go!) 팀이 7월 19일(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제학과 'Ego!(Economics Go!) 팀은 팀장 김은주(경제학과 4학년)를 비롯해서 경제학과 김사빈(4학년), 김성찬(4학년), 윤지우(4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 학생들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여 사전에 작성 및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통화정책 중 하나인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관해 주요 근거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팀은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으며 지역 예선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팀원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는다.



우승호 더블유비뇨의학과의원 원장, 후배사랑 발전기금 기탁

의과대학 동문들의 후배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우승호 더블유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이 7월 26일(수) 오후 4시 30분 대학본부 5층 접견실을 찾아 의과대학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우승호 원장은 충북대 의대 5회 졸업생이자 현재 의학과 재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해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날 기탁 행사에는 기탁자인 우승호 더블유비뇨의학과의원 원장과 고창섭 총장, 의과대학 김혜영 학장(2회 동문), 전현정 교육부학장(4회 동문)이 참석했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0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에 선정돼 성공적

으로 수정한 데 이어 신규 평가를 거쳐 이번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 3.0) 지역거점형'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은 연구 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의 일환으로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기술거점형과 지역거점형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올해 신설된 지역거점형에는 충북대 등 8개교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거점형은 3년(2+1년)간 약 22억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 내 기술사업화 허브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 전주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충북대의 강점 분야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총괄하는 CBO(최고기술사업화책임자) 중심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했으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거점대학으로서 충북도 내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약 2,000건 이상의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내·외부의 자원을 투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약학대학 흥진태 교수 연구팀, 폐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분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

약학대학 흥진태 교수 연구팀이 당단백질의 일종인 Chitinase-3-like-protein-1 (CHI3L1)이 endoplasmic reticulum (ER)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주요한 인자로 폐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분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받고 있다.

흥진태 교수 연구팀은 'Induction of ER stress-mediated apoptosis through SOD1 upregulation by deficiency of CHI3L1 inhibits lung metastasis(제1저자: 유지는 약학과 박사후연구원, 교신저자(공동): 약학과 흥진태 교수, 한상배 교수)'라는 제목

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LC-MS/MS 분석을 통해 CHI3L1과 ER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찾아내며, CHI3L1의 역제가 암세포에서만 ER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발견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폐암에서 CHI3L1과 연관성이 높은 인자인 SOD1을 발견하였고, 이는 PERK/eIF2α/ATF4 경로를 통해 CHOP의 발현을 유도하여 폐암 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의과대학 12회 동문들, 후배를 위한 마음 모아 발전기금 기탁

의과대학 12회 동문들이 6월 21일(수) 오후 2시 대학본부 접견실을 찾아 후배들을 위한 마음과 모교 의과대학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3,33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 행사에는 기탁자인 의과대학 12회 동문인 조아라 다나여성병원 원장과 박종혁 충북대 의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대학 측에서는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김혜영 의과대학장(2회), 이옥준 의과대학 부학장(4회)이 참석했다.



LINC 3.0 사업단, 1차년도 연차평가 우수성과 거뒀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3.0 사업단)이 우수성과를 거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5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LINC 3.0 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강화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산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대 LINC 3.0 사업단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공·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취업지원본부, 국가직 지역인재 7급 합격자 7명 배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2023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최종 7명이 합격했다.

이번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행정직군 이민영(행정학과 18학번), 정인학(행정학과 17학번), 정희재(경영학부 16학번), 기술직군 김나현(도시공학과 18학번), 김민정(원예과학과 19학번), 이민재(기계공학부 16학번), 이은서(환경생명화학과 18학번)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 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향후 1년간 중앙부처에서 수습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를 통해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농협은행 충북본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충북농협쌀 후원

농협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황종연)는 5월 23일(화)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농협쌀(1,0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한 끼당 학생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한다. 충북농협은 사업에 필요한 쌀(230포/20kg) 전량을 충북에서 생산된 쌀로 지원한다.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3급 특허 3건 출원 쾌거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는 자율주행 분야 및 제어 장비 관련 3급 특허를 3건 출원 완료했다.

3급 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는 국가별 특허의 질적 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로 USPTO(미국특허청), EPO(유럽특허청), JPO(일본특허청)에 동시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로 이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세계시장의 기술 혁신과 투자 방향에 맞는 경쟁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번 특허는 센터에서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박태형 교수의 '3D 라이더의 고속 객체 인식을 위한 채널별 컨볼루션 기반의 합성곱 신경망 구조' ▲김근우 교수 '자율 주행을 위한 단일 계층 3차원 다중 객체 검출 장치 및 방법' ▲안병철 교수의 '이동체 무선충전을 위한 코일 정렬 제어 방법 및 장치'를 발명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허는 22년 11월에 3개국 출원을 완료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12회 변호사 시험 63명 합격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학전문 대학원별 통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63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11위의 성과이며, 제12회 변호사시험 63명의 합격생 중에는 2023년도 신입 재판 연구원 3명도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개원 이래 603명의 변호사를 배출했으며 이는 졸업생 대비 77.1%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이다.

장석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조적인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교육과 레슬링부, 2023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수 성과

우리 대학 체육교육과 레슬링부(지도 교수 박종진, 감독 최명)가 지난 5월 10일(수)부터 5월 15일(월)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개최된 '2023년 기업은행배 아시아주니어 선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 대학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 한데 이어, 주니어 국가대표도 1명을 배출했다.

자유형 74kg급에 참가한 박성민(체육교육과 2학년)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경쟁자들을 차례로 연파하고 자유형 74kg급 금메달을 차지하며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오는 7월 12일(수)부터 20일(목)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자유형 74kg급 국가대표로 참가한다.

또한, 자유형 79kg급에 참가한 지민성(체육교육과 1학년) 선수는 새내기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를 펼쳤으나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레코로만형 82kg급에 참가한 엄성현(체육교육과 2학년) 선수는 다양한 기술과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4강에 진출하였으나 아쉽게 패하며 3위에 머물며 대회를 마감했다.



환경공학과,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사업 선정

환경공학과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에 선정됐다.

충북대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은 2023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충북·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거점국립대학 간에 컨소시엄, 관련 기업 간에 컨소시엄을 통하여 충청·호남지역의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에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으로 기술을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참여대학인 전북대학교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교과과정 신설/개편, 산학연계 세미나/현장실습, 인턴쉽, 기초연구, 산학공동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여명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환경공학과 교수)은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구축, 에너지융복합 친환경산업 인식 제고 및 기업의 수요 확대, 지역 수요에 따른 차별화 목표 및 효과를 통해 지역 환경격차 해소,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수의과대학, 국내 수의대 최초 동물보건학과 신설

우리 대학이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교육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70명의 신규 학생정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원 70명의 바이오헬스 학부를 신설하며 수의과대학 동물보건

학과, 의과대학 바이오헬스케어학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바이오헬스산업 공유학과의 3개 전공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도에 세종캠퍼스로 진출 예정인 수의과대학은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 위상에 맞게 국내 최초로 수의과대학 소속 동물보건학과를 개설하면서 동물의료 분야 첨단바이오 기술 전문가를 비롯하여 동물보건사, 동물방역사, 실험동물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예정이며, 졸업 후 성적우수자의 경우 수의학과 및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트랙도 계획 중이다.

우리 대학은 증원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 후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한국연구재단(교육부)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학기술정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단계) 선정

통신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은 대학 내 창업유망기술을 지원하여 창업인프라 저변 확대 및 R&BD 고도화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으로 13개 대학에 총 144억원을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주관대학으로써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1단계)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와 연합형 지원으로 최대 2년(1+1) 15억 원 내외 지원비를 활용할 넓은 범위의 '혁신창업실험실'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1단계) 사업으로 대학 내에서 총 35개 실험실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올해 신규 지원 실험실은 충북대 15개, 한국과학기술원 5개, 한밭대 3개 등 총 23개 실험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형 및 연합형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가능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지만 충북대는 참여대학(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과의 꾸준한 사업 네트워킹 및 후속사업 연계 등을 통해 사업에 선정됐다.



Clothoid-R팀, 2023 자율주행 로봇레이스대회 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Clothoid-R(지도교수 기

석철)팀이 지난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까지 양일간 오창캠퍼스 C-트랙에서 열린 「2023 자율주행 로봇레이스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자공학부, 지능로봇공학과, 기계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Clothoid-R팀(반영준, 김용석, 김예원, 정준범, 남민우, 이지원, 박수현, 허지원, 김해준, 육진수, 김민기)은 예선전에서 6위로 마무리한 후 결선에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ACC 알고리즘의 큰 역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학과 학생들,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행정학과 학생들이 민생당 부설 '재단법인 혁신과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학과 연민주(팀장, 4학년), 강민서(3학년), 손은지(4학년), 최정현(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3444팀'은 지난 2월 23일(목)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승전 및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이사장(당대표) 표창 및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3444팀'은 '라이트 온 - 임산부 배려석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을 제안해 상을 받았는데, 이는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다.



간호학과, 8년 연속 국가시험 100합격 쾌거

간호학과가 8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23년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졸업생 67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12년 간호학과 개설 이래 전원 100% 합격의 성과다. 간호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간호인재 육성을 위해 VR실습실, 멀티미디어실, PBL강의실 등 최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체계적 간호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네덜, 인도네시아 등과 학생교류 및 봉사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다. <박준영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옥외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

충북대학교에서는 대학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야외체육공간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해 갓길주차로 인한 안전위험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였다.

총사업비 15,580백만원이 투입된 옥외 체육시설 및 주차장 면적은 9,880㎡(지하 1층, 지상 1층)이며,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5면, 풋살장 2면, 농구장 2면, 지하 주차장은 326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2023년 9월 현재 지하 주차장은 충북대학교 및 체육진흥원(수영, 골프, 스쿼시, 헬스 등)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 충북대학교지점 새단장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 충북대학교지점(지점장 최영준)은 9월 18일(월) 오전 11시에 새단장 개점식을 열었다.

농협은행 충북대학교지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4주간의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고창섭 총장,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점식과 더불어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NH농협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황종연)는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3천만원을 기탁하였다.

고창섭 총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많은 관심을 보내준 NH농협은행 충북본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면서 “기탁금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종연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충북대와 협력적 동반자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농협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충북대의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1,000만원 상당의 농협쌀을 지원했는가 하면, 농업 관련 학과 학생에게 총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글로벌대학30 추진 공개토론회 개최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가 9월 5일(화) 오후 4시부터 개신문화관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로벌대학30 추진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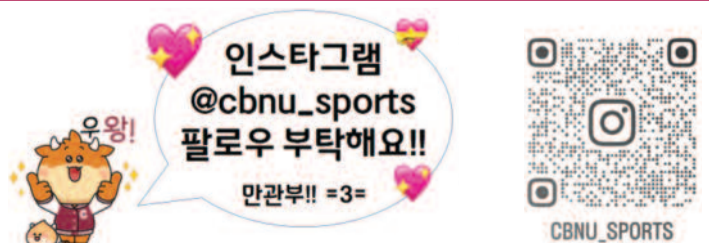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개토론회는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글로벌대학30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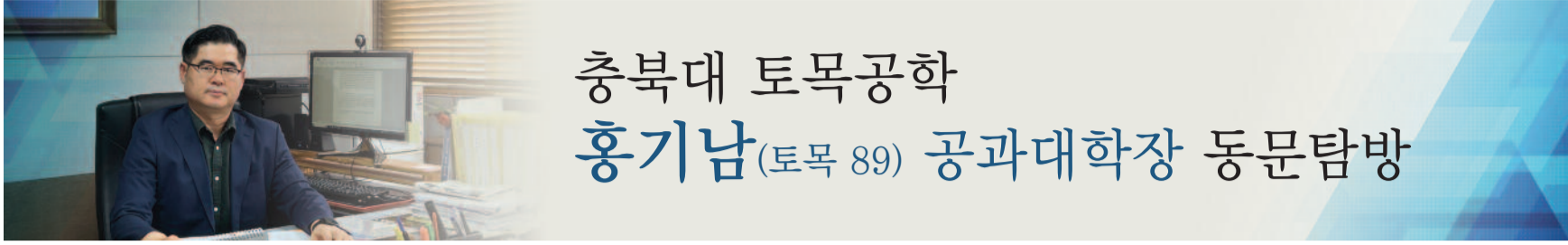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설명에 이어 구성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성원들이 궁금해 하는 대학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캠퍼스 특성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고창섭 총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에서 다루어진 구성원들의 지혜와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CBNU 스포츠센터 인스타그램 개설안내





충북대 토목공학 홍기남(토목 89) 공과대학장 동문탐방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근 근황과 함께 동문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공학과 89학번 출신 홍기남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모교인 충북대 토목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21년 9월부터 공과대학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모교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대학생이셨는지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의 대학 생활은 '7열람실'과 'ECG'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 1년 늦게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었고, 주로 90학번 후배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후배 5명과 함께 도서관 7열람실의 구석 자리를 잡고 공부하면서 짬짬이 농구와 음주를 즐겼습니다. 이 친구들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년 1학기 때 87학번 선배님의 추천으로 'ECG'라는 영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CG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모여 일주일 전에 배포된 뉴스위크나 타임지 기사를 읽고 영어로 토론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꿈꾸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ECG 활동은 영어 공부의 훌륭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회원들이 영어로 수필을 써서 ECG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 전공이 토목공학이며 일본에서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시겠는지요? 혹시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힘들었지만, 학과 후배 그리고 ECG 친구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기며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대학 생활에 특별한 후회나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만 평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시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토목 설계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남들과 다를 텐데요.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3월, 신방웅 총장님으로부터 토목공학과 전임교수로 임명장을 받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때 내 가슴 속에 새긴 맹세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 후배이자 제자인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이 제 강의를 통해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그 뿌듯함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지도교수의 역할과 함께 대학 선배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참으로 보람찬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교 출신 교수로서 뛰어난 연구와 지도 업적을 성취해야 하는 압박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명장을 받았던 그 순간에 다짐한 바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강의를 하시다 보면 힘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나만의 쉬는 공간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학교 내 피트니스 클럽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헬스장을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의 골프 연습장을 이용해서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대학30 사업'으로 인해 우리 대학과 한국교통대학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 관련해 시기와 방법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의 전신이 충주공업전문대이기 때문에 공과대학과 대부분의 학과들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공과대학장으로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기존 분야를 각 캠퍼스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은 새로운 연구 협력 기회를 열어 주며, 연구 그룹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통합안이 신속하게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후배이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을 만나보면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젊음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20~3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이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월 31일을 기준으로 공과대학장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주변 평가와는 무관하게, 저 자신은 이 기간 동안 공과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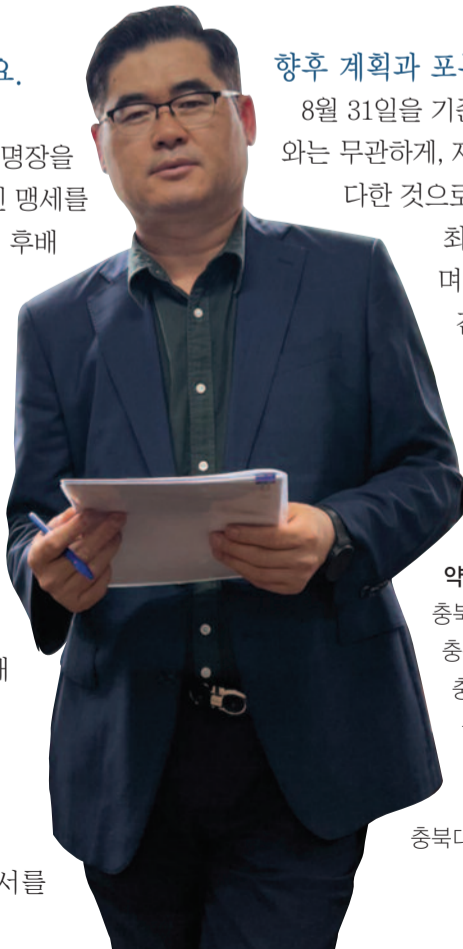
최근 3년간 학생생활관장과 공과대학장직을 수행하며 우리 토목공학부 학생들과의 교류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는 토목공학과 교수로 복귀하여, 후배인 학생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멘토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명장을 받을 때 다짐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약력

- 충북 충주 소태면 출생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1997)
- 충북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1999)
- 동북대학(일) 토목공학과 공학박사(2004)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임용(2006)
-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장(2020)
-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장(2021)

<김경열 편집위원>





동문을 위해 노력하는
충북도청 재직회장

고근석(법학 84) 사무처장을 만나다!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로나
마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창섭 총장님과 윤양택 총동문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법학과 84학번으로 졸업했
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최루탄이
교정에 난무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전교생이 시위에 참여하여 텅 빈 강의
실이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명이라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으면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들께는 늘 죄송했지만 저도 이런
시대 상황을 핑계로 학문 탐구와는
좀 거리가 먼 철부지 낭만과 정의,
그리고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개똥
철학에 심취하여 정보보다는 주로 셋길
을 오가는 이단아적 방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잡기에 두루 능해 당구는 300점으로
고수의 반열에도 올랐고, 1~2학년 때는
과대표를 떠맡아 사창시장·육거리
순대골목이 파할 때까지 막걸리 타령
으로 당시 우울한 시국을 개탄하였으며,
취업 공부보다는 화양동MT, 단축
마라톤, 음악다방 죽치기, 무전여행 등
젊음을 만끽한 화려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속의 실속을 못 차린 당연
한 결과로 어릴 적 꿈인 변호사의 꿈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늦은 군입대, 고시원·사찰·
도서관을 전전하다가 백수가 천사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인생에 책임감을
느끼게 될 무렵 그래도 주신(酒神)은
끝내 저를 버리지 않았는지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은 학교 성적순이 아니듯
이 방랑과 이단의 경험은 오히려 공직
생활에 긍정의 힘과 아이디어로 승화
되어 맡은 업무에 웃음과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행정
안전부 등 여러 중앙부처를 거쳐 고향
충청북도로 전입하여 도지사 비서관,
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바이오정책
과장, 음성군 부군수, 문화체육관광국
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초대 충북
도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임하면서
동문이신 훌륭한 황영호 도의장님을
포함하여 35분의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재직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도청에 동문모임은 잘 되고 있는지요?

우리 충북대가 지역의 거점대학
이기에 충북도청의 공무원은 충북대
출신이 석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 부서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충북도청 전체 직원의 약 36%, 관리
자급인 5급 사무관 이상은 약 50%에
육박하는 공무원이 충북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조직은 간절한 소속감이 있어야 잘
운영되는데 이렇듯 충북도청 전체가
동문으로 포위되어 있으니 별도의
모임을 가지며 애교심으로 뭉칠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지역에서 충북대 정도는
나와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교가 성장을 해 왔고
충북도청 발전의 큰 그림을 충북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명목상 충북도청 회장을 맡게
된 것은 저의 본의가 아니라 전임
회장님이신 이차영 전 괴산군수님이
이어 오진섭 전 재난안전실장님이
퇴임하시며 앞으로 고위직을 오래 할
자네가 그냥 회장직을 맡으라고 권유
하셔서 맡고 있습니다만 모임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청 동문분들께서 마음속
으로는 충북대 출신이라는 자긍심만
은 엄청난 것으로 생각되기에 도청
내 전체 동문 모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학과 단위별로 동문 모임을
결성하여 큰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
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충북도청 공무원(소방직 제외) 약 2,200여 명 중 충북대 출신 약 800여 명, 관리직 공무원인 5급 사무관급 이상은 약 450여 명 중 충북대 출신 약 220여 명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나 자부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가 있을까요.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대통령님
지시로 무형문화재나 명장분들의
우수한 작품의 판로 대책을 세우고
장돌뱅이 세일즈맨이 되어 전국 주요
도시와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고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장인들께
큰 힘이 되어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일.
대통령비서실에 차출되어 새벽부터
밤늦도록 서류와 씨름하고 점심시간
을 이용하여 인양산에 올라가 포부를
다진 일. 기재부 과전 시절 전국에
지역별 특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별
장단점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고, 도청에 전
입하여 전략산업 육성업무를 하다
평소 일기도 잘 안 쓰던 놈이 갑자기
도지사 연설비서관으로 차출되어
원 없이 타자를 두드렸던 일. 기획
팀장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 시대의 중심 충북 등 많은
도청 현안을 기획하고 실천한 일.
교통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는 경제성이
낮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입안하여 정부에 건의한
일. 음성군 부군수로 재직하며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국립소방
병원을 6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치한 일.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충청권 4개 시도를 조율하며 아시안
게임과 유니버시아드 유치의 장기 프로
젝트에 조직도 없이 유치계획서를
만들며 무모한 도전을 한 일(당시에
충청권 타 시도는 충북에서 하는 일에
관망만 하다가 이제 유치가 되니 자기
뉘를 챙기려 하는데 충북에 더욱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 특히
생각이 납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과 충북대 동문과 현재 후배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모교 충북대는 누가 뭐래도
충북의 중심대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적 자치가 보장된
지방정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정부의 시대에 지역인
재의 요람인 충북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
와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드리며 충북대 후배님들 모두 큰
인물이 되시어 충북을 더욱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글로벌대학30으로 충북대학교는 혁신합니다.



거점국립대 1위 도약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취·창업률 1위 대학

대학+지역 동반성장 특성화대학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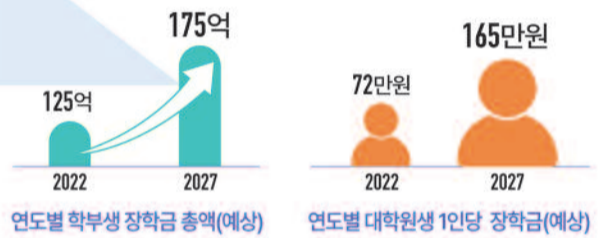
● 교육환경 개선

- 학과별 특성에 맞춘 **스마트 강의실** 구축 및 단과대학별 리모델링 추진
- **최첨단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단과대학별 대규모 **온라인 공동강의실** 신설 등



● 장학금 확대

- **교내장학금 확대 지원(학부 50억 / 대학원 30억)**
- 자기주도장학금 등 학생중심 장학금 제도 다양화 등



● 학생 취·창업 지원

- 학생주도 Gap-Zero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창업 아이디어 상품화/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창업캠프 확대
- 대기업, 공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및 자소서·면접 특강 등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일류 외국어(토익) 강사 온/오프라인 강의 지원
- **외국어시험(토익·토플, HSK, 델프, 토르플 등) 비용 전액 지원** 등
- 대기업/공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제도 확대**



●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 해외연수 프로그램,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 확대
- 매년 **동계/하계방학 300명씩 15일 정도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 해외 대학-우리대학 학·석사연계과정 신설 등



● 학생 복지지원

- 캠퍼스 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 푸드코트** 등 **유치** 및 **학생 할인** 지원
- **스포츠센터 학생 할인** 확대
- **학생복지 복합시설** 구축 (포토존, 플리마켓, VR체험, 자율학습공간 등)
- 학생주도 행사 다양화 및 지원
- 학내용 **킵보드, 전자사전기 무료 임대**
- **학교 셔틀버스(오송역, 터미널 및 교내) 운영** 등



교수

- 교내 연구비 확대 지원
- 실험실, 연구실 등 연구환경 개선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통한 연구지원 강화
- 기초보호학문 분야 지원 확대



직원

- 구성원 예술동아리 공간 확충
- 직원 국내외 직무연수 확대
- 직원 근무지, 희망부서 적극 반영
- 교직원 체력단련 프로그램 신설
- 직원 승진기회 확대(기획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 대학회계 공무원직 장기근속수당 확대

▶▶▶ 글로벌대학 30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CBNU가 될 것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선 동문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전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한 이경숙입니다. 82학번이에요. 현재는 뷰티콜라겐이라는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은 대한민국 수출 주력 산업입니다. 특히 충북은 그간 과감한 투자를 통해 K-뷰티의 심장이자 글로벌 화장품·뷰티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왔는데요. 그 중심에 대표님의 뷰티콜라겐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뷰티콜라겐이 중심에 있다는 말씀은 과대평가입니다. 다만, 충북 청주가 K-뷰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뷰티콜라겐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야겠지만 충북 청주가 명실상부 세계 화장품·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과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 회장을 맡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충북도와 청주시, 오송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청주시화장품기업협회를 창립하느라 상반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덕분인지 이제는 협회 임원사들이 거의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잠시 소홀했던 자사의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외유가 많은데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태국 바이어 상담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10월 1일 자사 제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하다가 본사 대표와 기술연구소장을 초청하여 300여 명의 셀럽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사의 ROA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인이라 제품 생산에도 힘에 부치는 면이 크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까지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태국의 라이브커머스 전문바이어와 인연이 되어 자사의 특화 제품인 로아 초정스파클링워터젤(초정 약수를 88% 함유한 진정 보습 수분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요. 덕분에 비타민 토너, 콜라겐 앰플, 선스틱밤 등 제품 구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여 아시아권 및 유럽, 미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뷰티콜라겐의 주력 상품이 궁금 합니다.

당연히 로아 초정스파클링워터젤입니다. 초정약수를 88% 함유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초정약수의 스토리를 마케팅에 활용한 뷰티콜라겐의 대표 상품입니다.

피부 진정 작용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콜라겐을 흡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뷰티콜라겐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셀퓨어 2500앰플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출시되었는데 단품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불호가 없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부각된 제품도 초정스파클링워터젤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키우기까지 늘 승승장구하셨던 것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운 때도 있으셨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창업 후 국내대리점만 운영하다가 2012년 오송국제뷰티화장품 박람회를 기회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과, 몽골, 베트남,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시장을 넓혀나갔는데, 근래 사드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 시장이 많이 잃게되어 힘들었죠.

현재는 손상모 개선 콜라겐 원료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다시 예전과 같은 전성기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문화, 산업이 한 방향을 보고 갈 때 기회는 다시 찾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는 청주시화장품기업협회 초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초대 회장으로서 대표님의 각오도 궁금합니다.

우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충북협회와 별도로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를 지난 6월 22일 창립 하였습니다. 혹자는 충북협회가 있는데 왜 굳이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를 창립 했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시거예요.

우리 충북에는 화장품 기업이 5~60여개가 있는데 이 중 80%가 청주공단, 오송, 오창 등 청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박람회, 국제사절단 등 화장품 기업을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 회원사의 수혜를 더욱 확대하고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청주시가 관심과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2023년 청주공예비엔날레에 화장품 마켓관 운용, 일본 오사카 박람회 참가, 오송뷰티화장품박람회에 청주시화장품 기업관 설치 등 청주시가 크고 작은 지원에 물심양면 애써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관련 담당 부서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의 위기가 있었고 요사이 중국의 화장품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시장도 키워 봤고, 밀려도 났습니다.

최근 많은 유커들이 한국 관광을 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유커들은 화장품 기업들이 관심 갖는 중요한 소비자입니다만 많은 화장품 기업들은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인들은 한국의 화장품을 선호하고 있지 않거든요. 코스메카, 콜마 등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미 거대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많은 중국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어 품질 좋고, 값싼 메이드인 중국 화장품 들을 세계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 에게 밀려나는 K뷰티의 수난 시대를 겪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K-뷰티만의 기술, 특화된 한국브랜드 이것을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조선킨의 오일 클렌징, 마녀공장의 독도 스킨 등 인디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와 LG를 넘어 선전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인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조기술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브랜드 마케팅을 했기에 시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 명품 화장품들이 브랜드를 먼저 알리고 생산 시설은 늦게 진출하였듯이 화장품 인디 브랜드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회원사가 청주시화장품 기업협회에 있습니다. 충북대 출신이기도 한 팜스킨 광태일 대표입니다. 또 화장품 원료기업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선진화장품 원료기업들이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 회원사들입니다. 아모레, 로레알 등에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청주시를 화장품 산업의 메카, 화장품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은 한 곳을 보고 가야 합니다. 청주시 어디를 가든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정 행궁, 청주국제공예관, 청남대, 청주 공항 등 사람이 모이고 외국 관광객이 오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나만의 스킨 토너와 비누 등을 만들어 나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청주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주에 오면 나만의 브랜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멋진 일 아닌가요? 명품 글로벌 화장품 도시. 이것이 제가 바라는 청주이고 제 야심찬 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편집위원)

dbu 신문사 편집국장 배시혜 (정치외교 21)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 충북대 신문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신문 편집국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21학번 배시혜입니다.

충북대 신문은 1955년 5월 2일 창간돼 현재까지 총 95호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일임하고 있는 충북대신문은 충북대 신문방송사 삼사 중 국자 신문사에 해당하고, 이 외에도 영자로 신문을 발행하는 Chungbuk Times, 영상 매체로 소식을 전달하는 Cubs가 있습니다.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장직을 맡기 전에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보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충북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이긴 하나 수도권이나 특별시가 아니다 보니 이동권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고, 그렇기에 2부작으로 나눠 기사를 발행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주 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권단체 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1부 기사에 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연이 그치지 않고 탐사형식으로 청주 내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기사를 시민 언론 사이트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보도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신문사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 썼 기사가 제일 기억이 남는 거 같아요. 당시 불법 사이트로 웹툰이 게재되면서 작가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현직에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는 작가님을 인터뷰하고 직접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두 눈으로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대 발전을 위한 신문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문사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는 학교를 자정하는 것입니다. 신문사의 경우 동아리와 달리 학내 부속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지면에 학교와 관련된 광고가 실리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홍보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갇히지

않고, 학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보도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신문사의 면모라고 봅니다.

올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과 더불어 내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오는 9월에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및 글로벌대학30에 대한 기사가 방송 삼사의 연합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자, 영자, 방송국이 각자 다른 주제로 기사를 실었다면 이번에는 각사의 관점에서 같은 주제를 선보일 예정이니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 매체 모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는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사 작성부터 기자의 자세까지 전달해주는 제1기 CBNU 언론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충북대 구성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충북대신문은 학생들의 공론장이 되고자 하는 신문이고, 모든 이들에게 이해가 되는 신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부담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첫 장이라도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신문사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차기 신문사 예비 기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기사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겠다는 신념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활동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신문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신문사가 무엇인지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휴학을 하고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해 보는 것입니다.



dbu 교육방송국 국장 한준희 (국문 3학년)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 충북대 방송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충북대학교 교육방송국 국장이자 기술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준희입니다.

저희의 주 활동으로는 라디오와 영상 제작입니다. 라디오는 방학과 시험 기간을 제외한 모든 주중 점심시간에 교내 곳곳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 영상은 위와 같은 기간의 매주 토요일 12시에 두 개씩 '충북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람 찾던 일이라면 올해 6월에 있었던 종방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선배님들을 초대하여 매 학기 방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방식과 종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진행해 본 행사가 올해 1학기 종방식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보도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말에 제작한 '달인'이라는 영상 콘텐츠가 기억이 납니다.

수습국원-활동 기간이 1년 안 된 국원-들은 교육방송국에 들어오게 되면, 첫 한 학기 동안 선배들에게 교육을 받고, 두 번째 학기부터 실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수습국원들끼리 2박 3일 동안 영상과 라디오를 제작해 보고 선배님들을 초대하여 제작물을 평가받는 '작품발표회'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바로 '달인'이 작품발표회에서 제가 참여했던 영상 콘텐츠입니다.

충북대 발전을 위한 방송국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주로 콘텐츠와 뉴스를 다루는데요. 뉴스와 관련해서는 날조 없는 사실만을 주관적 견해 없이 있는 그대로

학우들에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과 더불어 내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방송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행사인데요. 올해부터 다시 진행해 보려 기획 제작 중입니다.

방송을 통해 충북대 구성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다들 건강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차기 방송국 예비 단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

저희는 3가지 부서-아나운서부, 제작부, 그리고 기술부-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색다르고 재밌게 보람차게 보내보고 싶다'하는 학우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매주 국원들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동아리나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 관련 전문 장비들도 구비 중이니,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저희 방송국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무엇인가요?

먼저 진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영화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내적 역량부터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외적인 것도 많이 채우며 차근차근 계획대로 앞으로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김경열 편집위원>





충북대학교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상급종합병원 12개 필수 기준 목표충족률 완전 달성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